

인형극으로 눈높이 보건교육 ... 무료공연 봉사활동

보건교사 인형극단 '벌령코'

인형극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재미있는 눈높이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무료공연을 통해 나눔도 실천하고 있는 보건교사들이 있다. 서울시보건교사회 회원들로 구성된 인형극단 '벌령코' 소속 보건교사들이 주인공.

인형극단 '벌령코'는 팀장인 박미량 보건교사(옥수초)의 주도로 2012년 창단됐다. 팀장을 포함해 홍영희(대신초), 금은희(문창초), 김혜영(김원초), 김미경(염경초), 김영선(장원초), 박정옥(송인초), 박진주(금천초) 보건교사까지 모두 8명이 활동하고 있다.

박미량 보건교사는 인형극을 12년 전 처음 시작했다. "보건교육 내용을 학생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방법을 고민하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지역의 한 인형극단을 찾아가 1년간 배웠고, 보건교육에 활용하기 시작했죠."

보건교육 인형극을 동료 보건교사들과 공유하고, 보다 완성도 높은 인형극을 만들어 보고 싶어 동호회를 결성하게 됐다.

벌령코 단원들은 아이들 선정에서 자료조사, 시나리오 작성, 목소리 대본, 인형 제작까지 직접 한다. 시장을 발로 뛰어 구입한 원단을 한 째 한 째 비느질해 나가다 보면 아이들을 향한 진심이 인형에 깃든다.

한 편의 작품을 완성하는 데 보통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지금까지 출연예방 I·II, 성교육, 교통안전, 인성교육 모두 다섯 편의 인형극을 만들었다.

대학시절 연극반 경험을 바탕으로 주인공 역할을 도맡아 한다는 김영선 보건교사는 "학생들이 보건수업을 즐기게 된다는 것이 인형극의 가장 큰 효과"라고 말했다. 저학년은 선생님이 직접 만든 인형이라는 것만으로도 신나 하고, 고



보건교사들로 구성된 인형극단 '벌령코' 단원들. 공연장에서 관객들에게 몸을 숨기기 위해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두건을 쓴 채 인형을 조정한다.

학년은 역할을 나눠 인형극을 직접 해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벌령코 단원들은 인형극을 통해 나눔도 실천하고 있다. 지역 공부방, 어린이병원 등을 방문해 무료 공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금은희 보건교사는 "인형극단은 많지만 보건교육이라는 차별성과 전문성을 갖춘 곳은 벌령코뿐이라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보건교사들의 활동을 알리고 싶

어 국내 최대 인형극 축제인 '춘천 인형극제'에도 매년 참여하고 있다. 인형극 사랑에 푹 빠진 이들은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이 더 많다고.

"우선 다양한 주제의 보건교육 인형극을 꾸준히 만들어 낼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어르신들을 위한 인형극을 만들어 치매예방, 만성질환관리 등과 같은 건강교육을 해 보고 싶습니다."

김숙현 기자 skim@koreanurse.or.kr

국제보건활동 전문가를 꿈꾸며



정주환 (순천향대 간호학과 1학년)

"커피! 좋다." 이 상의 단편 소설 '날개'에 나오는 유망한 주인공이다.

올 여름 나는 커피의 나라 에티오피아에 다녀왔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KOHI)에서 진행한 국제협력전문과정 가정 보건주니어로 선발돼 다른 보건주니어와 함께 7월 17일부터 5박8일 일정으로 에티오피아에 갈 수 있었다.

지난 6월 29일부터 나흘간, 나는 다른 대학교 학생들과 KOHI에서 주관하는 보건주니어 국제협력 훈련과정에 참석했다. 이곳에서 공직개발원(OIDA)에 대해 공부하며, 국제개발 특히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보건사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기회가 있었다.

에티오피아로 떠나는 것은 보건주니어로 선발된 보건주니어로 구성된 '보건주니어 국제협력 전문가 기본과정'의 일환으로 계획되었으며, 나는 보건주니어 자격으로 시니어 소장님들과

동행할 수 있었다.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도착한 첫날 햇빛은 짙었지만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에 고원지대의 시원함이 느껴졌다.

우리는 명성기독병원과 의과대학을 방문했다. 한국의 병원보다는 많이 열악했지만, 그래도 참 잘 갖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 9시간에 걸쳐 아디스아바바에서 남서쪽 방향인 짐마 지역으로 이동했다.

짐마대학에서의 세미나 1일차, 짐마대학 부총장님과 짐마 보건의로 관계자들의 발표는 열정적이었다.

세미나 2일차에는 조를 나눠 각 조별로 보건소를 방문했다. 우리 일행은 아부 웰스센터(보건소)를 방문했다. 보건소에서 조산사인 아다케치가 임신부를 진찰하는 과정을 보게 됐다. 이제 1학년 1학기를 마친 나는 병원실습은 물론이거니와 학교에서도 실습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만리타국 에티오피아에서 임신부를 진찰하는 모습을 처음 보게 돼 매우 감동한 인상을 받았다. 협동 세미나 3일차, 현지답사 보고회와 짐마대학과 KOHI 간의 MOU 체결까지 잘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 필리핀으로 해외봉사를 간 경험이 있는 나는 그때부터 국제활동에 관심이 많았다. 다른 간호학과 학생들도 국제개발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특히 남자 간호대학생들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한다. 타인을 섬기는 일은 언제나 소중한 경험이 된다. 간호대학생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돼 타인을 섬기는 사람이 됐으면 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검시조사관' 권오영 간호사

억울한 죽음 없도록 명확한 사인 규명에 최선을

변사현장에서 사망원인을 수색해 풀듯 하나하나 찾아나가고, 미로 같은 사건의 실타래를 푼다. 억울한 죽음, 예기치 못한 사고 등에 맞서 고군분투하며 생의 마무리를 돕는다. 검시조사관의 역할이다.

검시조사관은 2005년 처음 경찰청에서 모집을 시작했다. 시험응시자격은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이며, 관련 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 약 120명 정도의 검시조사관이 활동 중이며, 이중 30% 정도가 간호사 출신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과학수사계 10팀 소속인 권오영 검시조사관(남자 38세)을 만났다. 강동대 간호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학병원에서 수술실간호사 등으로 근무했다. 2008년 검시조사관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국립과학

수사연구원 신입검시관 양성과정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열정과 능력을 인정받았다.

검시조사관은 과학수사요원과 함께 변사현장에 임장해 변사체 검시를 통해 사인을 분석하고, 현장감각을 통해 증거물을 수집한다. 의료차트 분석, 의료사고 현장 증거물 채증 등 의료사건 업무를 지원한다. 변사사건 현황, 통계, 행정관리 등 관할 변사사건 관리 업무도 담당한다.

권오영 검시조사관은 "사망원인에 대한 위험요인 및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변사자가 갖고 있던 질병, 현장에서 발견된 약물 감시, 손상사나 백골화 발견 시 적용 가능한 해부학적 지식 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학지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시조사관의 하루는 쉴 새가

없다. 촌각을 다투며 변사현장에 출동한다. 사건은 예고 없이 벌어지기 때문에 항상 촉각을 세워야 한다.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다.

"변사자가 '왜 사망했을까'하는 물음표들을 하나씩 지우다보면 미로 같았던 사건이 풀려요. 이때 검시조사관으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해에는 아산에 묻힌 살인사건 피해자의 시신을 찾기 위해 비까지 내리는 가운데 추운 날씨와 싸우며 몇 시간 동안 사체를 발굴했다. 그는 "서울에 올라와 유가족에게 사체를 인도했을 때 이제 고인이 편하게 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하고 보람됐다"고 말했다.

검시조사관으로서 힘든 점은 없을까. "유가족에게 사인을 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과학수사계 10팀 소속인 권오영 검시조사관은 미로 같은 사건의 실타래를 풀었을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명할 때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다"면서 "젊은 나이에 자살하거나 고독사한 노인을 볼 때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고 답했다.

권오영 검시조사관은 순천향대 법과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열심이다. 억울한 죽음이 묻히지 않도록 공부와 연구를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

주혜진 기자 hjoo@

메르스 유공자 간호사 15명 장관 표창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메르스 발생 시 의료기관 등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메르스 유행 확산 저지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간호사 15명이 장관 표창을 받았다.

△안수경(국립중앙의료원 차장) △김경순(국립중앙의료원 간호팀장) △정달남(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김미란(건국대병원 책임간호사) △홍선옥(강원대병원 간호팀장) △김수현(고대안산병원 감염관리간호사) △박해미(서울 강서구보건소) △최유영(서울의료원 간호파트장) △서은경(평택굿모닝병원 간호부장) △곽성숙(서울대병원 수간호사) △김영은(단국대병원 간호부장) △김씨래(서울대병원 간호사) △신은숙(전남대병원 감염관리실 팀장) △손경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장), △이유경(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 괄호안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직위임.

한편 이에 앞서 지난 7월 29일 메르스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시상식에 있었으며, 간호사 18명이 수상했다. 명단은 간호사신문 8월 11일자 3면에 게재.

성경아 간호사, 바다에 빠진 시민 생명 구해



바다에 빠진 피서객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해 생명을 구한 간호사의 소식이 알려졌다. 미담의 주인공은 성경아 이대목동병원 간호사다.

성경아 간호사는 지난 8월 14일 가족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강원도 강릉 사근진해변을 찾았다. 그 곳에서 바다에 빠진 한 남성 피서객이 해상구조요원에 의해 구조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육지로 옮겨진 피서객은 심장이 뛰지 않았고 청색증이 진행되고 있었다. 해상구조요원에게 자신이 간호사임을 밝히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이후 피서객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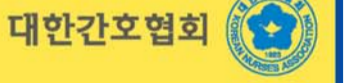
피서객의 가족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잘 받은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면서 "자기중심적인 요즘 세상에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성경아 간호사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성경아 간호사는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면서 "청색증이 진행되고 있는 피서객을 보며 꼭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말했다.

김숙현 기자 skim@

KNA 면허신고센터 1644-1755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김옥수 인제인 김갑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다06368
◇대한간호협회 (02) 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호사신문 (02) 2260-2571 FAX (02) 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 2260-2571 nursenews.co.kr



2016 유휴간호사 현장실무훈련 지원사업 안내

유휴간호사 채용

현장실무훈련 참가

훈련비 지급

- 참가기관 기준(가, 나 요건 중 한 개 이상 충족)
 -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예정) 병원
 - 나. 실습지도자 교육 및 간호관리자 교육 이수 병원
- 유휴간호사 기준: 경력단절 기간 1년 이상 유휴간호사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훈련비 지급

유휴간호사를 (수습)채용한 병원에 현장실무훈련비 지급

기간	훈련비 지급	지급액
1주	50,000원 X 5일	250,000원
2주	50,000원 X 10일	500,000원
4주	50,000원 X 20일	1,000,000원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예시: 4시간 근무 50% 지급)

환자가 안전하고 국민이 행복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인력 확보!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가 앞장서겠습니다.

권역센터 안내

- 서울·강원 ☎ 02)2268-2631~3
- 인천·경기 ☎ 032)441-2926
- 대전·충북·충남 ☎ 042)825-0749
- 대구·경북 ☎ 053)756-8487
- 부산·울산·경남 ☎ 051)442-3824~5
- 광주·전북·전남·제주 ☎ 062)222-5025

※필요서류는 홈페이지(www.RNjob.or.kr)에서 다운로드